

순천시, 낫술금지...식당서 오전 5시~오후 4시 술 못 팔아

‘순천시’, 2단계 + α 행정명령...정부 안보다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 종교시설 방문 등 고의 누락...무관용 고발 조치

순천시에서 앞으로 주류판매 및 낫술이 금지된다. 또 식당 등 대중이 모이는 곳은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코로나19’대 시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 두기를 연장하고

낫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기존보다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

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모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허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처분,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일 확진된 순천 202번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했기에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즉시 고발조치를 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조례동의 한 음식점처럼 영업 제한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전 5시 영업하다 전국적인 지탄사례가 됐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행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순천시코로나19대책본부는 11월과 12월 경북 상주BTJ열방센터, 울산 인

터림 선교센터 방문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곳 방문자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인될 경우 전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순천 192번부터 197번까지 6명의 가족 간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순천 198번부터 202번까지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도 순천 203~204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새해 들어 13명으로 늘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하트 만들어 보이는 임시선별진료소 의료진 새해 첫 주말인 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밝은 표정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중앙대, 로스쿨·의전원 학생 등 6명 확진...변호사시험은?

학생·교직원 등 6명 1일 확진 판정 로스쿨생 있던 기숙사에도 응시생 5~9일 변호사시험 그대로 진행돼

새해 첫날 중앙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학생과 의과대학 대학원(의전원) 학생 등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대에 따르면 지난 1일 로스쿨생 1년차 1명, 의전원 학생 1명, 일반대학원생 3명, 사범대 교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로스쿨 생의 경우 동작구청 후석운수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에 안내에 따라 지난달 31일 검사를 진행했다.

이 학생은 1월 1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 기숙사에 살던 이 학생은 검사 당일 퇴관했고, 방역당국은 해당 호실 및 동선 소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다른 실에 있는 학생들은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안내하고 도시락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5명도 동작구청 후석운수 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고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동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 후석운수 등

작11번, 동작10번 마을버스를 이용했다. 한편 코로나 3차 대유행속에서도 오는 5~9일 닷새간 변호사시험이 진행된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어 정부는 시험을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의 경우 응시생 182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로스쿨 1년차이지만, 해당 학생이 머물던 기숙사에는 이번 시험을 치를 사람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숙사에는 변호사시험을 치를 외부 응시생들도 입실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은 다른 기숙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무안 산란계 농장서 H5형 조류독감 항원 검출

닭 7만8000마리 살처분·고병원성 정밀검사 중

무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에서 닭이 조류독감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무안군 청계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7만8000마리를 즉시 살처분하고,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항원이 검출된 농장 3km 이내에는 농가 1곳에서 닭 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고병원성 확산시 예방적 살처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소독을 하고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30일 동안 가금류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남에서는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영암과 나주, 장성 육용오리 농장 5곳과 오리도축장 1곳, 구례 육용오리 농장 2곳, 곡성 육용오리 농장 1곳 등 9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농장 55곳의 오리·닭 185만8300 마리를 살처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경찰,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14명 구속·72명 입건

전남경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수사를 벌여 86명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 불법 촬영 음란물을 제작에 관여하거나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불법 촬영물·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소지 또는 구입한 혐의를 받은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음란물 촬영사주 또는 제작 ▲불법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물·아동 성 착취 음란물 소지·거래 등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18명은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바일 채팅 앱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사

실이 확인됐다. 또 피의자 중 82%에 해당하는 70명은 통신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전남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3일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도 경찰청과 관내 각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했다. 김정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